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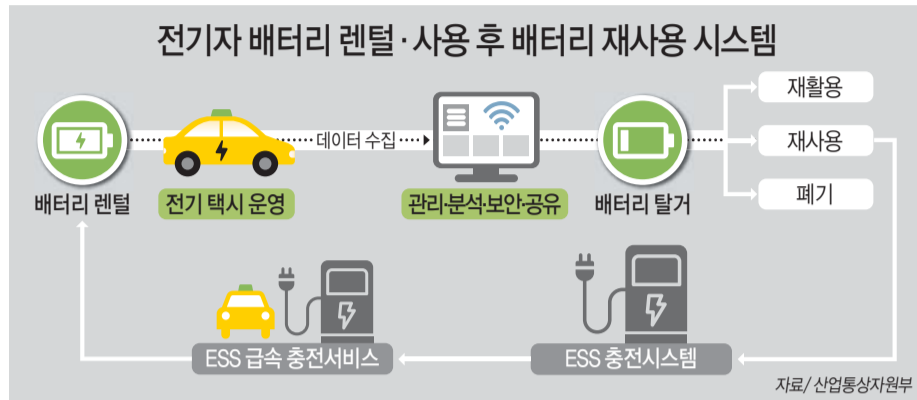
[해설] LG 사업보고회 '고객 중심' 기반 디지털 가속 03



코스피	2346.74 (+5.21)	코스닥	822.25 (-11.59)
금리 (미국 3년)	0.891 (+0.003)	환율 (원/달러)	1142.00 (-5.40) (19일)

'사용 후 배터리' ESS로 재활용... 정부, 규제 면제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택시 배터리 렌탈사업부터 태양광 발전 생산전력 저장 등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실증특례



앞으로 전기차에서 사용한 뒤 버려지는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차가 추진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에 정부가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2029년까지 8만개의 사용후 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 그린경제를 앞당기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사업'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 9건, 임시허가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신청 업체들은 모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는데, 여러

개를 합쳐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또는 태양광 발전용(현대차)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구바이카)한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탈사업을 함께 수행해보겠다고 신청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탈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로 제작한다.

전기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연간 약 7만km)가 길어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

모델에 적합하다. 택시회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택시를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 실증에 나선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뒤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CT 강국 대한민국 135년 통신사는 어디에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데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 박물관이 없는 건가요?"

5세대(5G) 첫 상용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 마땅한 정보통신박물관이 없어 정보통신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정보통신박물관 추진 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19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4일 한성정보총국 개설 135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전시관 'KT텔레뮤지엄'을 선보였다. 온라인을 통해 KT가 소장한 6000여점의 통신 사료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전시다.

KT 관계자는 "원래는 더 짧은 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었다"며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확보해 중장기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추진 계획 전무 미래투자 집중, 역사는 뒷전 인력 전문화 위해 개관 필요

KT '텔레뮤지엄' 선보여 6000여점 통신사료 소개

하지만 최근 열린 온라인 전시를 제외하고는 직접 찾아가서 통신 역사 기념품이나 사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KT가 자체적으로 약식으로만 전시하는 정도다. 정보통신 역사 관련 사료 등은 대부분 KT 원주연수관에 보관돼 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부분 정보통신 박물관이 마련돼 있다. 박물관 인력 풀은 정보통신 역사 관련 학술 단체에 준하기도 한다.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은 베이징에 중국통신 박물관이 설립돼 있고, 일본은 도쿄에 큰 규모로 NTT 기술 역사관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발전은 135주년에 달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최초 통신은 1885년 9월28일 지금의 서울세종로에 한성정보총국(KT의 전신)이 개국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인터넷 강국이 되기까지 통신사업 5개년 개발 계획부터 전국광역 자동화, 전국 초고속 통신망 구축까지 수많은 전환기가 있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자리한 전기통신발상지기념탑. /김나인 기자

정부에서는 매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보통신 발전 공로자에게 포상 등을 하는 등 기념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정보통신 역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우리나라에 아예 정보통신박물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서울 용산에 정보통신박물관을 세웠으나 폐관됐으며, 1996년 충청남도에 충남정보통신박물관을 설립하려 했지만 청사 임대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단순 유물 전시뿐 아니라 역사 편찬이나 전문전담 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도 박물관을 개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홍성무 부회장은 "정보통신 박물관이 있어야 전문 인력 양성에 활판데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때문에 목살되고 있다"며 "해마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정부는 ICT 미래 기술 투자 등에만 집중하고 있어 정보통신박물관 개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보통신 관련 박물관 설립 추진 계획은 없다"며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지만 박물관 개관의 경우 예산 타당성 심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유류청사나 건물을 활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보통신 박물관을 세울 수 있다는 대안도 있다. 정보통신 발달이 가속화돼 자동화, 전자화되면서 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류청사나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 실제, 스웨덴 통신박물관도 유류건물을 활용해 세워졌다.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 시작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한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신성약품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17세 男 무료접종 이틀 후 사망 질병관리청 "정확한 원인 조사"

운반 도중 상온 노출로 논란이 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10대가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상온 노출 사고를 일으킨 신성약품이 공급한 무료 백신을 맞았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독감백신을 접종한 뒤 신고된 이상 반응은 총 353건이 신고됐다"며 이 가운데 사망 사례가 1건이 보고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인천 지역에서 접종받은 17

세 남성으로,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은 후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국내 처음이다.

다만, 예방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사망자가 접종한 독감백신은 신성약품이 조달한 백신이 맞지만 회수대상 백신은 아니며 해당 백신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접종 전후 특이사항은 없었고 현재 부검으로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먼저 파악한 뒤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용액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되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한국백신 제조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질병청은 이날 한국백신이 제조한 독감백신 가운데 백색입자가 발견돼 회수한 백신을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상온에 노출돼 회수된 신성약품 조달 백신 일부 물량에 대한 처리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백색입자가 발견된 문제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총 6897명이며, 그 중 93.1%가 20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selee@

/김나인 기자 silkni@